

[논단]

교구 사제의 영적 삶을 위한 사제적 식별*

■
민 범 식

[가톨릭대학교 영성신학 교수·신부]

들어가는 말

1. 식별의 필요성
 2. 사제적 식별
 - 2.1. 용어
 - 2.2. 사제적 식별의 주체
 - 2.3. 사제적 식별의 대상과 내용, 목적
 - 2.4. 사제적 식별의 기준
 3. 사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
- 나가는 말

들어가는 말

영적 식별¹⁾은 모든 신앙인의 그리스도교적 삶의 역동성에 포함

* 이 글은 필자의 2007년 석사학위(교황청립 그레고리오대학교, 영성신학) 논문 “Il discernimento sacerdotale: la forma interiore della vita spirituale del presbitero diocesano”의 일부를 번역, 수정·보완한 것이며, 2019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비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되었다.

1) ‘영적 식별’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선행 연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영적 식별에 대해 직접 다루지 않겠다. 이 주제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A. Barruffo, “Discernimento”, in *Nuovo Dizionario di Spiritualità*(a cura di S. De Fiores e T. Goffi), Paoline, Cinisello Balsamo, 1989, 5^{ed.}, pp.419-430; A. Cappelletti, “Discernimento degli spiriti”, in *Dizionario Enciclopedico di Spiritualità* I(a cura di Ermanno Ancilli e del Pontificio Istituto di Spiritualità del Teresianum), Città Nuova Editrice, Roma, 1990, pp.806-810; C. Aquino, “Il discernimento spirituale in comune”, in *Discernimento per “dire Dio” oggi* (Conferenza Episcopale Siciliana, M. Russotto ed.), Palermo, 2001, pp.227-232; F. Pieri, *Paolo e Ignazio: testimoni e maestri del discernimento*, Roma, 2002; G. Liedke, “spt”(giudicare) in *Dizionario Teologico dell'Antico Testamento* II(E. Jenni, C. Westermann), Marietti Editori, Torino, 1978, pp.902-911; G. E. Ganss, “Discrezione”, in *Nuovo Dizionario di Spiritualità*

되는 핵심 개념이다. 신앙인은 세례성사를 통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로마 12,2)하는 삶으로 초대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무사제 역시, 사제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신앙인이며 주님의 제자로서²⁾ 자신의 사명과 삶 안에서 영적 식별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직무사제에게 있어서 영적 식별은 모든 그리스도인에 공통으로 주어진 소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사제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자기 개인의 성덕을 추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하느님 백성 전체를 위한 봉사를 직무로 부여받은 이들이기 때문이다. 곧, 신자들로 하여금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을 직무로 부여받았다는 점³⁾을 생각하면 사제에게 있어서 영적 식별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사제는 자신의 삶 안에서 영적 식별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영적 식별의 일반적 원칙 외에, 특별히 사제의 삶과 영성을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요소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에, 사제의 직무 안에서 행하게 되는 영적 식별, 곧 사제적 식

(diretto da M. Downey; edizione italiana a cura di L. Borriello), Libreria Editrice Vaticana, Città del Vaticano, 2003, p.255; M. Costa, *Direzione spirituale e discernimento*, Edizioni ADP, Roma 1993; M. Ruiz Jurado, *Il discernimento spirituale: teologia, storia, pratica*, Edizioni San Paolo, Cinisello Balsamo, Milano: Società San Paolo, 1997; M. I. Rupnik, *Il discernimento*, Lipa, Roma, 2004; M. J. Buckley, “Discernimento degli spiriti”, in *Nuovo Dizionario di Spiritualità* (diretto da M. Downey; edizione italiana a cura di L. Borriello), Libreria Editrice Vaticana, Città del Vaticano, 2003, pp.248~255; P. Schiavone, *Il discernimento evangelico oggi: cercare e trovare la volontà di Dio*, CIS, Roma; ESUR, Messina, 1988.

2) “신약의 사제들은 성품성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백성 가운데서 그 백성을 위하여 가장 고귀하고 필수적인 임무인 아버지와 스승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사제들은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과 더불어 주님의 제자들이 되고, 그들을 부르신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사제품」(*Presbyterorum Ordinis*) 9항].

3) Cfr. A. Barruffo, “Movimenti sacerdotali e spiritualità dei presbiteri”, in *Rassegna di Teologia* 30(1989), 424-425.

별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식별의 필요성

사제는 하느님 백성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이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사제를 “하느님의 백성에게 봉사하도록 부름 받아 [...] 언제나 하느님의 자녀들의 선익을 추구하며, 교구 전체는 물론 교회 전체의 사목 활동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⁴⁾ 하는 이로 천명하며, 하느님 백성 전체를 위한 봉사가 사제의 신원의 핵심 중의 하나임을 밝히고 있다.⁵⁾ 이 봉사 안에서 사제는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요한 10,7~16 참조)의 모범을 따라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다. 그러므로, 사제의 신원과 영성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하도록 파견된 신자들 무리 안에 사제가 머물러야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사제는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영혼의 목자에게 고유한 수덕을 쌓는다. 곧 자신의 편의를 물리치고, 자신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찾아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며, 사목 활동을 더욱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언제나 더더욱 앞으로 나아가며, ‘불고 싶은 데로 부는’ 사랑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⁶⁾ 살아가게 된다.

여기에서 먼저, 하느님 백성을 위한 봉사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교구 사제 영성의 특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⁷⁾ 이는 봉사 직

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 28항.

5) 사제의 신원을 ‘봉사’에서 찾는 관점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직무사제직과 관련하여 계속 제시된 여러 교회 문헌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참조: 「사제품」 12항;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직무 사제직」(*Ultimis temporibus*) 제1부 6항; 요한바오로 2세, 「현대의 사제 양성」(*Pastores Dabo Vobis*),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12항. 16항; 성직자성, 「사제 성소의 선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8, 71항 등). 특히 친교를 이루는 이로서의 봉사를 사제 신원의 뿌리로 제시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장흥훈, “친교의 전문가·친교의 건설가”, 『신학전망』 195(2016), 광주가톨릭대학교출판부, 2~18쪽.

6) 「사제품」 13항.

7) 하느님 백성을 위한 봉사는 교구 사제나 수도 사제를 막론하고 직무사제직으로

무를 위해 축성되고 개별 교회에 입적하여 존재하는⁸⁾ 교구 사제의 고유성에 기반을 둔 특성이다. 다시 말해, 영혼의 돌봄을 위한 봉사 직무는 수도 사제보다는 교구 사제에게 우선적으로 속하는 직무인 것이다.⁹⁾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교구 사제의 영성은 그들이 마주하게 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문제에 응답할 수 있기를 요청받는다고 할 수 있다.¹⁰⁾ 다시 말해, 영혼의 돌봄이라는 측면에서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지평을 향해 열려 있으면서도, 세상 삶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들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 영성이어야 한다는 것이다.¹¹⁾

그런데 이러한 요구에서부터 교구 사제의 삶에 한 가지 어려움이 생겨난다. 곧 교구 사제 자신의 내적이고 영적인 삶과 사도적 활동 사이의 조화에 대한 어려움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부

불리운 모든 사제에게 해당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교구 사제에게 보다 직접 연결되는 직무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직무사제직과 관련된 여러 문헌에서 이러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가톨릭 사제직의 단일성 때문에, 이 같은 사제 양성은 교구 사제나 수도 사제를 막론하고, 또 어떤 전례 의식을 따르든지 모든 사제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직접 교구 사제(재속 사제)들에게 관계되는 이 규정들은 적당한 방법으로 모든 사제들에게 적용되어야 하겠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온 교회의 열망」(*Optatam Totius*) 서론]; “여기에 서술되는 것은 모든 사제, 특히 사목의 임무를 담당한 사제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수도사제들에게는 필요한 조정을 가하여 적용할 것이다”[「사제품」 1항].

8)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주교들의 사목 임무에 관한 교령 「주님이신 그리스도」(*Christus Dominus*) 28항; 「사제품」 1항.

9) 민범식, “내적 인간으로서의 교구 사제 생활의 역동성”, 『신학전망』 199(2017), 광주가톨릭대학교출판부, 112~118쪽 참조.

10) 인류복음화성도 교구 사제를 “자신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성부께 맡겨드리며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목자가 자신의 양들을 잘 아는 것처럼 신자들이 처한 현실 안에서 그들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 형제들처럼 신자들의 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신자들을 모범으로 이끌면서 그들과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이, 추문이 될 수 있는 것을 신중하게 피하는 이”로 소개하면서 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교구 사제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Cf. *Congregazione per l'evangelizzazione dei popoli*, “Guida pastorale. Le giovani chiese per i sacerdoti diocesani delle chiese dipendenti dalla Congregazione per l'evangelizzazione dei popoli”(1989.10.1.), in *Enchiridion Vaticanum* 11(1988-1989), n.5].

11) Cf. P. Tiddia, “Sintesi delle risposte al Questionario”, in *La spiritualità del prete diocesano*, CEI, 1990, p.39.

들은 이미 이 어려움을 예상하고 지적하고 있다.

현대 세계에서 사람들은 수많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또 혼히는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허다한 문제들에 짓눌려 있으므로, 여러 가지 일에 자신을 분산시킬 위험이 드물지 않다. 그러나 사제들은 자기가 맡아 하어야 할 수많은 일에 얽혀 마음이 흩어진다 하더라도 외적 활동과 자신의 내적 생활을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뇌하며 찾아내야 한다.¹²⁾

이러한 어려움에 잘 대처하지 않는다면 사제의 삶은 세상일과는 아무 관련이 없이 영적인 삶만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거나, 혹은 그와 정반대로 교회의 이름 안에 있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세속화의 양상으로 귀결될 수 있다.¹³⁾ 그리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사제는 하느님 백성을 위한 봉사라는 자신이 본질적으로 부름 받은 성소에 온전히 응답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묘사한 후, 이어서 공의회회의 교부들은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곧 사제들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줌으로써 자신을 그리스도와 결합시켜 자기 삶의 일치를”¹⁴⁾ 이루어야 하며, 또 “자기 생활의 일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려면, 자신의 모든 활동을 검토하여,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 그 활동이 교회의 복음 사명의 규범과 부합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¹⁵⁾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에서 또 다른 어려움이 제기된다. 문헌은 ‘사제 자신의 활동이 교회의 복음 사명의 규범과 부합하는지 살펴볼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복음 사명의 규범이 일종의 설명서처럼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한 대응 방식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본당 성전을 재건축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할 때 그 본당이 속한 지역의 상황과 본당 구성원들의 특성

12) 「사제품」 14항.

13) Cf. P. Tiddia, *op.cit.*, p.39.

14) 「사제품」 14항.

15) 「사제품」 14항.

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규정에 따라서만 일을 진행할 수는 없다. 본당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상황을 고려하고 조율하면서, 그중에서 어떠한 선택이 교회의 복음 사명에 더 부합하는지를 살피고 판단하고 정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공의회의 교부들이 제시하는 것은 식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교회의 복음 사명이라는 기준을 구체적이고 다양한 상황들에 적용하여 실현해나가는 방법이며, 또 사제 개인의 차원에서는 사도적 활동을 열정적으로 해나가면서도 동시에 그 안에서 영적인 삶을 성장시키는 방법이다. 사제의 삶에 있어 영적 식별의 의미와 필요성이 여기에서 드러난다.

영적 식별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아가는 과정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탐구는 순수하게 지적인 인식의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식별을 통해 탐구한 것을 실천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처럼 식별은 내적인 성찰과 외적인 실행이 함께 연결된 행위이며, “기도와 활동이 만나는 곳”¹⁶⁾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식별은 내면의 영적인 삶과 사도적 활동의 삶을 동시에 살아야 하는 교구 사제들이 특히 더 배우고 함양해야 할 삶의 양태인 것이다.

앞서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사제는 ‘불고 싶은 데로 부는’ 사랑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느님 백성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자신을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는지 잘 알아들을 때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온몸이 성장하도록 힘찬 도움을 가져다”¹⁷⁾ 주는 자신의 직무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러할 때 직무사제로서 자신의 신원과 영성을 더 충만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하느님 백성을 위한 봉사라는 영적 식별의 근본적인 필요성에 덧붙여, 교도권은 사제의 삶의 다양한 측면, 예를 들어 사제 성소,¹⁸⁾ 시대의 징표와 복음화,¹⁹⁾ 복음적 근본주의,²⁰⁾ 현세 재화의

16) 토머스 그린, 『밀밭의 가라지』, 바오로딸, 1994, 5쪽.

17) 『인류의 빛』 28항.

18) “후보자 각자의 연령과 그 성숙에 따라, 끊임없는 관심으로, 그들의 바른 지향

과 자유 의사, 영성적 도덕적 지성적 자질, 그리고 적절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살펴보아야 하며, 가정에서 물려받았을 성향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사제의 중책을 맡아 사목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후보자들의 역량을 심사숙고하여야 한다”(「온교회의 열망」 6항);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는 목소리가 어떤 기이한 방법으로 미래 사제에게 들리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주님의 목소리는 날마다 하느님의 뜻이 슬기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드러나는 징표들에서 이해되고 식별되어야 하며, 사제들은 이러한 징표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사제품」 11항); “이처럼 복음의 시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 복음의 시각으로 분별하는 일은 성령께 의지함으로써 더욱 지혜롭고 더욱 확실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복음의 시각으로 분별하는 일은 성부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것을 편안히 믿는 것입니다”(「현대의 사제 양성」 10항).

19) “모든 시대에 걸쳐 교회는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고 이를 복음의 빛으로 해석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세대에 알맞은 방법으로 교회는 현재와 내세의 삶의 의미 그리고 그 상호 관계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물음에 대답해 줄 수 있을 것이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 4항); “그럼으로써 사제들은 평신도와 함께 시대의 징표를 인식할 수 있다. 사제는 어떠한 영이 하느님께 속한 것인지 판단하고, 평신도들이 받은 높고 낮은 여러 형태의 은사들을 신앙 감각으로 찾아내고, 기꺼이 인정하며, 열심히 보살피 주어야 한다”(「사제품」 9항);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적 상황을 해석한다는 것은 새롭고 유일한 시각 곧 복음의 시각으로 분별할 때 필요한 인식의 원칙과 효과적인 선택 기준에 입각해서 역사적 상황을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살아 있는 참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빛과 힘, 또한 성령께서 보내주시는 선물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현대의 사제 양성」 10항); “사제들은 자신이 속한 고유한 문화를 판단하는 것, 다시 말해 그 문화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무가치하고 오류적인 것들로부터 참된 가치를 구별하는 것을 배우면서 신뢰와 기쁨으로 이 고단한 사도적 환경에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Guida pastorale. Le giovani chiese [...]”, n.11).

20) “그리스도의 진정한 봉사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되이 일하며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고 마치 성령에 불들린 것처럼,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대로 움직인다.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와 생활의 온갖 일에서 사제는 하느님께서 맡겨 주신 모든 사람에게는 겸손되이 봉사함으로써 일상생활 환경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또 실행할 수 있다”(「사제품」 15항); “사제직을 수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덕들 가운데서도 항상 자의 뜻이 아닌 자기를 보내신 분의 뜻을 기꺼이 좇으려는 마음의 자세에 대하여”(「현대의 사제 양성」 28항); “사제가 가난할 때만이, 비록 자신에게는 희생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손길을 좀더 필요로 하고 또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으로 언제나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가난은 사도로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인 동시에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가난하면 오직 스승이신

선용,²¹⁾ 사제의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활동²²⁾ 등의 측면에서 식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 문헌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다.

그렇다면, 사제의 삶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영적 식별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를 고찰하기 위해, 사제가 수행하는 영적 식별의 과정을 그 주체와 대상, 기준 등의 구조적 요소들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사제적 식별

2.1. 용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영적 식별은 교구 사제의 영적이고 사도적인 삶의 일치를 이루기 위한 원리이며, 또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목 현장 안에서 어떠한 선택이 교회의 복음 사명에 부합하는지를 찾는 방법이다. 특별히 교구 사제에게 있어서 이는, 하느님의 백성인 신자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교구’라는 사도적 환경 안에서, 자신의 사제적 삶을 더 풍요롭게 살아가는 데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드러난다. 이처럼 사제가 자신의 삶 안에서 행하는 영적 식별을 우리는 ‘사제적 식별’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간략하게 언급하면, ‘영적 식별’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 복음적인 가난을 실천하게 되면 내적인 자유도 잘 보존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커지게 됩니다”(「현대의 사제 양성」 30항).

21) “그러므로 사제들은 세상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을 이용하여, 쓸데없는 온갖 걱정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게 되는 저 자유에 이를 것이다. 이 자유와 순응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자라나 세상과 지상 재화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사제품」 17항).

22) “구체적인 상황에서 세속적 활동이 사제 직무와 일치를 이루는지 않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임무들과 활동들이 교회의 선교나, 아직도 복음의 메시지를 받지 못한 이들에게,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도움을 주는지 않는지를 물어야겠고, (도움을 준다면)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는가를 물어야겠다”(「직무 사제직」 제2부, I, 2항).

이라는 용어에서 ‘영적’이라는 형용사는 식별이 이루어지는 차원과 질을 일컫는 표현이다.²³⁾ 곧 식별의 대상이나 내용이 아니라, 식별 자체가 이루어지는 구조와 방법이 어떠한지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영적 식별’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든지 간에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식별이며,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식별의 작업은 성령의 이끄심에 순응하는 내적 자세를 긴밀하게 요구한다.²⁴⁾ 이에 반해, ‘영의 식별’이라는 용어에서 ‘영의’라는 표현은 식별이 이루어지는 영역, 보다 정확하게는 식별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영의 식별’은 인간 내면에서 활동하며 작용하는 ‘선한 영’과 ‘악한 영’을 대상으로 하는 식별이다.²⁵⁾

이와 유사하게 우리는 ‘사제적 식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제적’이라는 표현은 위에서 말한 식별의 차원과 질 그리고 대상이라는 두 측면 모두를 포함하는 표현으로 알아들을 수 있다. 먼저, 식별의 차원과 질의 측면에서 이 용어는 사제가 자신의 사제적 삶 안에서 행하는 식별을 의미한다. 곧, 영적 식별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식별의 구조적이고 방법론적인 측면을 나타내듯이, 사제적 식별은 사제인 한에서 행하게 되는 그리고 행해야 하는 식별을 의미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식별의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이 용어는 사제의 존재와 삶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식별을 의미한다. 이는 성품성사를 통하여 존재론적 변화²⁶⁾를 이루는 사제의 신원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사제로서의 직접적인 직무 수행뿐만 아니라 사제라는 신원으로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일과 환경,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 활동 모두가 식별의 대상이 됨을 일컫는 표현이다.

23) Cf. M. Ruiz Jurado, *op.cit.*, p.23.

24) Cf. M. Costa, *op.cit.*, pp.160~161.

25) Cf. M. Ruiz Jurado, *op.cit.*, p.24; M. Costa, *op.cit.*, p.161.

26) “사제는 대사제이시며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결합되는 독특한 존재론적인 결속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워주었습니다”(「현대의 사제 양성」 11항).

이러한 사제적 식별이 ‘영적 식별’을 전제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영적인 차원, 곧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식별일 때에만 이 참된 식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제적 식별이라는 용어를 통해 강조되는 것은 이러한 식별을 수행하는 사제의 신원과 정체성 그리고 영성이다. 다시 말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으로 요청되는 영적 식별을 교구 사제라는 삶의 자리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행함으로써 사제 자신의 정체성과 영성을 심화하고, 그럼으로써 사제의 영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실천적인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영적 식별이 영적인 인간의 활동인 것처럼, 사제적 식별 역시 영적인 인간인, 그리고 영적 인간이어야 하는 사제의 활동이다. 영적 식별이 그리스도인 삶의 매 순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사제적 식별 역시 사제 삶의 매 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영적 식별이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를 실행하려는 목적을 지니는 것처럼, 사제적 식별 역시 자기 삶의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실행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하지만, 영적 식별을 전제하고 공통된 부분을 지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제적 식별은 하느님 뜻에 대한 탐구와 실행의 모범을 특별히 자기 삶의 유일한 원리이신 대사제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식별이다. 이러한 식별을 통해 사제는 대사제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닮아가며,²⁷⁾ 그럼으로써 성품성사를 통해 수여된 대사제 그리스도와 사제 사이의 존재론적 일치를 성장시키고 완성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대사제 그리스도와 사제 사이의 존재론적 일치는 사제의 모든 삶의 시작이며 마침이다.

이것이 바로 사제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식별의 보다 구체적인 의미요 실제적인 적용으로서의 사제적 식별이다. 이러한 사제적 식별의 계속된 수행을 통해서 사제, 특히 교구 사제는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에서도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의 현존을 드러내는 사

27) “사제들은 축성됨으로써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이며, 예수께서 갖고 계신 목자로서의 사랑을 모범으로 삼아 실천해 나가도록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현대의 사제 양성』 22항).

제적 삶을 더 깊이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제적 식별의 구체적인 구조와 내용, 기준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2.2. 사제적 식별의 주체

‘영적 식별’이라는 용어에서 드러나듯이 이 식별의 본질적인 주체는 성령이시다. 곧 성령께서 영원하신 성부의 뜻에 따라 식별하시며, 이러한 성령께 순응함으로써 인간이 식별이라는 행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²⁸⁾ 하지만 성령께 순응하는 인간의 내적 자세와 협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영적 식별의 또 하나의 주체로서 영적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며, 영적 인간의 완전한 모범, 곧 성령의 이끄심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맡기는 가장 완전한 모범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된다. 그리고 영적 식별의 주체인 인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식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찰하기도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제적 식별의 주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제적 식별에서도 그 본질적인 주체는 성령이시지만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식별을 수행하는 사제 역시 사제적 식별의 주체로 드러난다. 앞서 용어에서 다룬 바대로, 사제적 식별은 ‘직무사제’가 자신의 삶과 활동 안에서 사제로서 행하는 식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제적 식별의 주체로서 사제를 이야기할 때, 사제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찰함으로써 사제적 식별의 구조와 내용이 명확해진다.

이는 다시금 사제의 신원과 정체성에 대한 물음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이미 다른 곳에서 풍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²⁹⁾ 본고에서는 이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특별히

28) Cf. M. Costa, *op.cit.*, pp.175~176.

29)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직무사제의 신원과 영성을 명확히 하고 심화하려는 교회의 의향은 이후 발간된 수많은 문헌과 각종 연구들을 통해 드러난다. 특히 1992년에 발간된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권고 「현대의 사제 양성」 문헌은 그중

사제적 식별과 관련하여 강조될 필요가 있는 몇몇 요소들만 언급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먼저, 사제의 신원과 영성은 성품성사 안에서 주어지는 안수와 도유에서 비롯한다.

신약성서는 형제들 가운데서 뽑힌 이러한 사람들에게 직무를 수여하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령이시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수는 성령의 선물을 전해 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형제들 가운데서 뽑힌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안수를 받음으로써 화해의 직무와 하느님의 양떼를 돌보는 직무와 가르치는 직무를 지속시켜 나가야 하고 또한 지속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성령께서는 성품성사 때 도유함으로써, 새롭고도 특별한 방법으로, 서품된 사제들이 머리이시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목자로서의 사랑을 지닌 수 있도록 해 주시어, 그들을 더욱 활기차게 해 주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인다운 삶의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일을 하는 교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³⁰⁾

안수와 도유를 통해 사제는 대사제 그리스도와 존재론적으로 결합하며, 이러한 결합은 사제를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행동’하는 이, ‘그리스도의 표징이며 도구’, 세상을 위한 구원의 ‘살아 있는 성사’로 존재하게 한다.³¹⁾ 무엇보다도 사제는 ‘그리스도의 신비에 온전히 사로잡힌 인간’이다. 이는 사제라는 존재의 모든 차원, 곧 자신의 고유한 내면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기쁨의 원천 그리고 실존적 확실성에 이르기까지 존재의 모든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활동과 사명을 이어가는 자’로 있는 것이 바로 사제의 정체성이라는 의미다. 성품성사는 사제 안에서 실제적이고 내적인 변모를 일으키며,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내기 때문이다(참조:

안의 과정을 집대성한 종합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후로도 이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은 그치지 않고 2013년 발표된 베네딕토 16세의 자의교서 「성직자 양성」에 이어 2016년 성직자성에서 기존의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1970, 1985)을 개정한 「사제 성소의 선물」이 발간되기에 이른다.

30) 「현대의 사제 양성」 15항.

31) 마리오 카프리올리, 『사제직. 신학과 영성』, 기쁜소식, 2018, 104~115쪽 참조.

에페 4,24; 콜로 3,10).³²⁾

이러한 사실로부터 중요한 점이 부각된다. 즉, 사제의 신원을 특징짓는 첫 번째 요소는 공동체를 위한 봉사보다는, 그리스도와 맺는 유일한 친교이며 이를 통해 사제 개인과 하느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관계라는 점이다. 그리스도와의 친교에서부터 공동체를 위한 사제의 특별한 봉사가 우러나온다.³³⁾ 앞서, 사제는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하기 위해 부름 받은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봉사가 사제의 신원과 영성을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제의 신원과 영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제와 대사제 그리스도가 성사적으로 맺는 존재론적 결속의 관계가 하느님 백성을 위한 봉사라는 사명보다 더 본질적인 차원이라는 의미다. 백성을 위한 참다운 봉사는 그리스도와의 결속 관계에서 자동적으로 우러나는 열매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의미가 명확해진다.

또한 우리는 예수의 생애와 사명을 통해 구체화된 구원 역사 안에서 성령의 활동과 역할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사제요 착한 목자이신 예수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으며(참조: 마태 1,18~25; 루카 1,35),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고 다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으며(루카 4,1 참조), 성령의 힘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루카 4,14~19 참조). 성령께서는 예수 안에 항구하게 머물러 계셨으며(요한 1,32~34 참조),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성부께 바치시고(히브 1,14 참조) 그로써 세상을 구원하셨다.³⁴⁾ 이처럼 예수의 삶이 성령의 현존과 작용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그리스도와 존재론적 일치를 이루는 사제 역시 자기 삶의 모든 부분에 있

32) Cf. R. Lavatori, R. Poliero, *Mistero e identità del presbitero: ripresentazione sacramentale di Gesù Cristo*, Urbaniana University Press, Città del Vaticano, 2002, p.179.

33) Cf. P. Laghi, "Sinodo '90: figura e formazione del prete del 2000", in *Rassegna di Teologia* 32(1991), 8~9.

34) Cf. J. Esquerda Bifet, *Spiritualità sacerdotale per una chiesa missionaria*, Urbaniana University Press, Vatican City, 1998, p.81.

어서 성령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의탁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제적 식별의 주체인 직무사제에 대한 고찰에서 드러나는 것은, 사제가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이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제는 성품성사를 통해 이루어진 그리스도와와의 존재론적으로 결합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며, 이러한 결합을 구체적인 삶 안에서 드러내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현존을 늘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 곧, 사제적 식별의 주체인 사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는 존재’로 드러나는 데, 이는 사제적 식별의 대상과 내용, 목적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의 기초가 된다.

2.3. 사제적 식별의 대상과 내용, 목적

일반적으로 영적 식별은 그리스도교 영적 체험과 관련한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성서적 표상들과 이후 교회 역사 안에서 드러나는 영적 식별의 전통을 살펴보면 식별의 대상은 다양한 영들과 내적인 움직임들에서 시작하여 예언자의 정통성, 발현과 환시, 삶의 신분, 교회 내의 여러 운동 그리고 시대의 징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³⁵⁾ 이 대상들은 식별하는 이의 주관적인 체험과 연관되기도 하고(참조: 1코린 11,28; 2코린 13,5; 갈라 6,4; 에페 5,15), 때로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모든 활동에 연관되기도 한다(참조: 1테살 5,19~22; 필리 1,9~10). 그러나 식별의 이러한 다양성과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식별에서 공통으로 드러나는 핵심 요소는 언제나 ‘하느님 뜻에 대한 추구’다. 식별은 하느님의 뜻이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찾는 행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뜻에 맞는 것,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35) Cf. M. M. Fernández, “Discernimento”, in *Dizionario Teologico della Vita Consacrata*(a cura di T. Goffi e A. Palazzini), Editrice ÀNCORA MILANO, Milano, 1992, pp.618-619.

찾고자 하는 영적 식별은 하느님의 뜻과 관련한 영적 경험에 대해서만 식별하는 좁은 의미에 제한되지 않고, 하느님 뜻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를 넓히게 된다.³⁶⁾ 곧, 하느님 뜻이라는 최종적 가치를 찾는 데에 도움이 되는 수단과 도구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식별한다는 의미다.

이와 유사하게, 사제적 식별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사제적 식별은 사목 현장에서 사제가 직무로 부여받은 역할에 대한 수행을 그 대상으로 한다. 곧, “본당 공동체의 목자이며 인도자”³⁷⁾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이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 건설에 유익한가를 식별하여 행하는 것이다. 본당 사목 안에서의 구체적인 직무 수행, 영적 지도, 교회의 다양한 신심 운동과 단체들에 대한 지도뿐만 아니라 교구 내에서 신자들의 ‘영혼을 돌보는’ 것과 관련한 모든 것이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사제적 식별은 개인 차원이든 사목 차원이든 사제가 행하는 외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사제의 내적인 차원을 포함한 존재 양식 모두를 그 대상으로 삼는다. 사제는 어떤 특정한 역할을 맡아 수행하는 ‘기능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교구 사제가 직무로 부여받은 사명 안에서 신자들의 신앙과 선의를 ‘돌보고 증진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개별 교회와 더 나아가 하느님 백성 전체를 위한 봉사를 ‘수행’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제의 사목적이고 영적인 봉사는 행위나 기능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현존을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는 것에 기초³⁸⁾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제의 기능적인 행위가 아닌 존재 자체와 연결되어 있는 봉사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사제의 존재 의미가 특정 업무들에 대한 수행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사제의 인격과 존재를 통해

36) Cf. M. Costa, *op.cit.*, p.179.

37) 교황청 성직자성, 「본당 공동체의 목자이며 인도자인 사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3.

38) “사제는 교회의 배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현대의 사제 양성」 22항).

공동체 안에 머무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에 달리게 되는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대로 사제적 식별의 주체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존재론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사제’라고 한다면, 사제적 식별의 대상은 기능적인 차원의 구체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존재론적 결속을 어떻게 더 증진시키는가의 문제로까지 확장된다. 곧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더 나아가, ‘어떤 존재로 있어야 하는가’의 차원까지를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제적 식별의 대상은 직무 수행과 관련한 행위만이 아니라 사제 내면의 차원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사제적 식별의 근본적인 내용은 보다 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다. 대사제이신 그리스도를 닮는 것,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현존, 그리스도의 마음을 비롯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자신 안에 내재화(internalization)하는 것이다(참조: 갈라 2,20; 필리 2,5). 대사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동화되기 위해³⁹⁾ 모든 사제는 자기 삶의 외적 측면에서든 내적 측면에서든, 모든 것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서 사제적 식별의 근본 목적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바로 대사제이신 그리스도께 동화(configuration)되는 것이다. 이는 사제가 그리스도와 맺는 존재론적 결합을 자신의 존재와 사명 안에서 투명하게 드러낸다는 의미다. 사제의 영성은 마음과 시선, 지향과 행위 등 모든 면에 있어서 대사제이며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이루는 일치에서 비롯되는데, 이러한 일치의 영성은 사제적 식별을 수행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현되고 성장하게 된다.

2.4. 사제적 식별의 기준

사제적 식별이 대사제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고

39) 「사제 성소의 선물」 3항 참조.

또 그분께 동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에서 사제적 식별의 기준이 무엇인가도 자동적으로 드러난다. 결국, 매일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것을 찾는 사제적 식별의 기준 자체는 그리스도이시다. 사실 식별의 완전한 모범이신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모든 영적 식별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점이다. 그러나 사제적 식별의 기준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그리스도께 대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직무사제직의 기원인 그리스도의 사제직의 관점에서 바라본 대사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사제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살아가면서,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를 현존케 하고,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다른 이를 만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도구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제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제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며, 사제가 자신의 삶 안에서 식별하고 선택하고 수행해야 할 모든 것을 배우는 데 있어서 유일한 기준이 된다. 곧, 모든 것에 있어서 자신의 지향이나 판단, 선택이 그리스도의 것을 닮았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식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제 자신의 내적인 차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사실 사제에게 요구되는 모든 덕은 ‘대사제 그리스도께로의 동화’라는 핵심으로 수렴된다. 예를 들어 마음의 선함, 진실함, 영혼의 힘과 향구함, 정의를 수호하는 데 있어 부지런함, 예절 등 사제적 식별의 부차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여러 덕의 핵심은 결국 얼마만큼 대사제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하는 부분인 것이다.⁴⁰⁾ 그리고 이처럼 그리스도께 동화되는 사제의 신원과 영성을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개념이 바로 ‘목자적 사랑’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다른 모든 덕을 포함하는 사제의 근본적인 덕이다.

40) Cf. G. Bonfiglioli, “La spiritualità del prete diocesano”, in *Alle sorgenti della spiritualità sacerdotale: commento del decreto «Presbyterorum Ordinis» sul ministero e la vita sacerdotale*(a cura di G. Giaquinta), Centro Editoriale Pro Sanctitate, Roma, 1966, p.405.

사제는 이처럼 성품성사를 통하여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써 축성되기 때문에 사제의 영성 생활은 한마디로 목자로서의 사랑이라고 요약될 수 있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과 행동과 원의를 그대로 배우고 닮고 따르는 것입니다.⁴¹⁾

사제는 머리이시며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제의 영성 생활을 활기차게 해 주고 이끌어주는 힘, 즉 내적인 원칙은 목자로서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목자로서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성령께서 자유롭게 주시는 선물이자 사제 편에서의 자유롭고 명확한 응답을 요구하는 임무 내지는 부르심입니다.⁴²⁾

모든 그리스도인의 완덕과 성덕이 애덕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1 코린 13,13 참조), 사제의 성덕 역시 애덕 안에서 완성되는데, 사제의 애덕이 구체적인 모양새를 띠는 것이 바로 목자적 애덕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마음 안에서 계신 사랑이며, 그리스도께 동화된 사제가 인간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뜻과 관련하여 자신의 매일의 삶 안에서 실제로 드러내야 하는 사랑이다.⁴³⁾ 이 목자적 사랑에 힘입어 사제는 기도와 사도직, 관상과 활동 사이에서 비롯되는 긴장을 넘어서서 자신의 직무 수행과 영적인 삶을 일치시킬 수 있으며,⁴⁴⁾ 성품성사를 통해 부여된 삼중 직무 사이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럼으로써 개별 교회의 다양한 상황을 향해 열려 있으면서도 안정적인 헌신으로서의 영성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⁴⁵⁾

41) 「현대의 사제 양성」 21항.

42) 「현대의 사제 양성」 23항.

43) Cf. G. Oggioni, “*Vi ho chiamati amici*”: *spiritualità del presbitero diocesano*, Ancora, Milano, 1989, p.171.

44) “실로,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서 끊임없이 성부의 뜻을 성취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교역자들을 통하여 활동하고 계신다. 따라서 그리스도야말로 항상 교역자들에게 그 생활 통일의 원리이시며 원천이시다. 따라서 사제는 성부의 뜻을 깨닫고 맡겨진 양무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줌으로써 자신을 그리스도께 일치시킨다면 그 때에 비로소 생활 통일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사제는 착한 목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목자적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 생활과 행동을 통일시키는 사제적 완덕의 끈을 발견하게 된다”(「사제품」 14항).

45) Cf. E. Castellucci, “Il presbitero del 2000: uno sguardo alla teologia”, in *Seminarium*

이처럼 대사제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목자적 사랑은 그리스도와 사제 사이의 존재론적 유대를 통해 사제에게 부여되며, 사제적 식별의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⁴⁶⁾ 즉, 매일의 삶에서 이러한 목자적 사랑을 키우고 성장시키면서, 사제는 계속해서 조금씩 대사제 그리스도께로 동화되어 가는 것이다.⁴⁷⁾ 그렇기 때문에 사제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목자적 사랑이 자신의 존재 안에 점점 더 내재화되고 그 결과로 외적인 활동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찾아야 한다. 자신 안에 목자적 사랑을 증진시키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한 내적 외적 환경을 찾고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사제적 식별의 또 하나의 목적이며 기준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제의 성덕을 위해 교회의 전통 가르침 안에서 제시되어왔던 모든 수단과 도구들, 예를 들어 미사 거행이나 묵상기도, 매일의 의식 성찰, 정기적인 고해성사, 거룩한 독서, 영적 지도, 성모 신심 등⁴⁸⁾의 모든 도구도 결국 목자적 사랑을 사제 안에 함양하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께 동화되게 하는 유익한 환경이요 조건들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제적 식별의 구조 곧 그 주제, 대상과 내용과

40(2000), 783.

46) “이러한 목자로서의 사랑이야말로 사제가 벌이는 수많은 다양한 활동들이 통일성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는 내적인 원리입니다. 사제의 내적인 생활과 외적인 많은 활동, 그리고 사제의 직무들이 서로 일치를 이루는 것은 근본적이고도 영원한 바람인 동시에 복잡, 분열, 분산을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 교회 환경에서 특별히 진실하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목자로서의 사랑을 가지게 되면 이런 것도 올바르게 실현시킬 수 있게 됩니다. 사제는 순간순간을 그리고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양떼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선택을 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끌고 감으로써, 사제의 내적인 영성 생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이러한 통일성을 확실하게 이룰 수 있게 됩니다.”(「현대의 사제 양성」 23항).

47) “사제는 이처럼 성품성사를 통하여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써 축성되기 때문에, 사제의 영성 생활은 한마디로 목자로서의 사랑이라고 요약될 수 있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과 행동과 원의를 그대로 배우고 닮고 따르는 것입니다.”(「현대의 사제 양성」 21항).

48) 「사제품」 18항 참조.

목적 그리고 기준에 대한 구조적 접근에서 드러나는 점은 이 구조적 요소들이 결국 그리스도, 특히 대사제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수렴된다는 점이다. 영적 식별의 핵심이 절대 능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부의 뜻을 계시하셨던 성자 그리스도와와의 인격적 만남에 달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제적 식별의 핵심은 사제직의 원형이신 대사제 그리스도와와의 긴밀한 일치요 동화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제 영성의 핵심을 차지하는 그리스도론적 전망은 사제적 식별에서도 같은 위치를 차지한다. 사제가 수행하는 직무사제직은 다른 여타의 사제직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사제직이기 때문이다. “사제란 신원은 새롭고 영원한 계약에서 유일한 최고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되고, 그분께 특별한 방법으로 참여하고, 그분의 뒤를 잇는다는 데에 그 참다운 의미가”⁴⁹⁾ 있기 때문에, 대사제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시고 행하신 바 그대로 존재하고 행동하기 위해 사제가 살아가는 양식이 바로 사제적 식별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대사제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시고 행하신 삶의 핵심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사제적 식별이 사제의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제직의 핵심 요소인 ‘중개자’로서의 면모를 살펴보기로 하자.

3. 사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1티모 2,4)신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히브 1,1)하신 후에, 인간을 당신과 화해시키시고 또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 때에 성령의 도우 안에서 당신의 외아드님, 곧 육화하신 말씀을 보내셨다(참조: 이사 61; 루카 4,18-19).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49) 「현대의 사제 양성」 12항.

것은, 성자의 육화의 신비가 담고 있는 의미가 바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에 있다는 사실이다.

중개의 역할은 다른 무엇보다 사제라는 신원에 귀속되는 특성이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은총과 자비와 용서라는 선물을 전하기 위해서 뽑아 세우신 이, 그리고 백성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예물과 제물을 바치는 역할을 맡은 이가 바로 사제인데, 이러한 사제직의 탁월함은 하느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중개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다.⁵⁰⁾ 이처럼 영원하신 말씀의 육화의 신비는 그 자체로 사제의 중개적 특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제직은 영원으로부터 선재하시는 성부의 말씀인 성자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자의 육화의 신비와 연결된다.⁵¹⁾ 사실 사제직의 개념은 일종의 ‘열등함’이라는 자세를 내포한다. 하느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제는 자기 자신을 낮추며, 그럼으로써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은 그 권능과 영원성에서 온전히 동일하시며, 따라서 세 위격 사이의 그 어떤 종속이나 열등의 개념을 생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제직은 두 번째 위격이신 영원하신 말씀의 속성에 속하는 것일 수 없고, 말씀의 거룩하게 되신 인성에 속하게

50) Cf. C. Marmion, *Cristo ideale del sacerdote*, Vita e Pensiero, Milano, 1953, p.5.

51) “성부와 창조 사이의 중개자로서 로고스를 소개하는 히브리서의 매우 정제된 서언(히브 1,2 참조)은 육화의 신비를 배제하면서 성자와 사제직을 연결하지 않는다. 말씀은 태초부터 ‘아들’이셨지, ‘사제’가 아니셨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씀이 성자가 ‘되셔야 했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말씀은 이미 태초부터 성부의 아들이셨기 때문이다. 반면에 저자는 말씀이 대사제가 ‘되셔야 했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진술한다. 말씀은 사제가 아니셨기 때문이다”(A. Vanhoye, *Sacerdoti antichi e nuovo sacerdote secondo il Nuovo Testamento*, Elledici, Torino, 1990, p.124); “그리스도의 사제직은—S. Zedda에 의하면—영원으로부터 기원하지 않는다. 성부의 아드님께서는 육화를 향한(히브 5,5) 거룩한 성소로써(히브 5,1~6) 인성을 취하시어 사제가 ‘되셨으며’, 그럼으로써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칠 수 있게 되었다(히브 10,5~10). 따라서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그러셨던 것이 아니라, 육화의 신비를 통해서 ‘영원한’ 사제가 되셨다. 사제가 ‘되신 것’이다”(J. Galot, *Gesù Liberatore. Cristologia II*, Libreria Ed. Fiorentina, Firenze, 1983, p.189). —이 두 인용은 R. Lavatori, R. Poliero, *op.cit.*, p.36의 각 주 40에서 재인용한 것임.

되는 것이다. 곧, 영원하신 말씀께서는 육화의 신비를 통해서만 중개의 역할을 맡게 되신다.⁵²⁾

이처럼 영원하신 말씀은, ‘참 하느님’이시면서도, 인간을 위한 구원자-사제가 되기 위해 육화를 통해 ‘참 인간’이 되셨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제직의 존재론적 토대는 말씀의 위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되는 위격적 결합(Hypostatic union)에 있으며, 이를 통해 예수께서는 완벽한 사제적 중개자요 인간의 구원자로 당신 자신을 봉헌하신다.⁵³⁾

그리고 예수의 사제적 중개는 특히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봉헌하신 부활의 신비 안에서 결정적으로 완성된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착한 목자임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는 그 일치 안으로 양들을 모아들일 수 있도록 자기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다. 자기 자신을 바침으로써 최고이며 유일한 사제직을 실현하시면서, 그분은 구약이나 심지어 이방인의 의례적 사제직과 번제들을, 그것을 완성하셨고 또 능가하셨다.⁵⁴⁾

히브리서의 저자는 세 번에 걸쳐 ‘중개자’라는 명칭을 예수께 적용하고 있는데(참조: 히브 8,6; 9,15; 12,24), 이러한 적용에 있어서 저자는 사제와 중개자라는 용어가 본질적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듯 보인다. 그에게 있어서 중개는 사제직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이며, 따라서 사제는 본질적으로 하늘과 땅, 하느님과 인간을 잇는 중개자라고 단언하는 것이다(히브 5,1 참조).⁵⁵⁾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또한 인간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개에 대해 여러 문헌 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⁵⁶⁾ 이는 특히 「현대의 사제 양성」 문헌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52) Cf. C. Marmion, *op.cit.*, p.5.

53) Cf. R. Lavatori, R. Poliero, *op.cit.*, pp.37~38.

54) 「직무 사제직」 제1부, 1항.

55) Cf. R. Lavatori, R. Poliero, *op.cit.*, p.32.

56) 참조: 「전례 헌장」 5항; 「게시 헌장」 2항; 「선교 교령」 3항, 7항; 「사제품」 2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스스로 신약의 사제직이 갖고 있는 면모들을 완전하고도 결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 이 지상에 사시는 동안 전 생애를 통해서 [...]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쓴 저자의 말처럼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 자체가 성부와 인류를 이어주는 완전한 중재자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우리가 성령의 은총을 받아 성부께로 직접 갈 수 있도록 해 주신 중재자이신 것입니다.⁵⁷⁾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개자-사제의 고유한 직무는 하나님께 인간의 것을 봉헌하고, 인간에게는 신적인 것을 전해 주는 역할에 있다. 상승과 하강, 이것이 사제적 중개 직무 안에 담겨 있는 두 방향성인 것이다. 상승은 특별히 희생제사와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며, 하강은 신적인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을 전달하는 것 안에서 이루어진다.⁵⁸⁾ 그리고 이 두 방향의 움직임의 정점을 이루신 분이 바로 대사제 그리스도시다.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제직, 그중에서도 특히 사제들의 사제직의 유일한 원천이자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참된 원형”⁵⁹⁾이신 그리스도의 사제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개하는 중개자의 역할로 드러난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그리스도의 사제직이 이미 육화의 신비의 중개적 특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기원을 두는 직무사제직도 비록 성사적으로는 예수 생애의 최후의 만찬 사건(마르 14,22~26; 1코린 11,23~25 참조)에 그 토대를 두고 있지만, 존재론적 기원은 말씀의 육화의 신비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중개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대한 이러한 고찰은 직무사제들의 사제적 식별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낸다. 곧, 사제적 식별을 통해 대사제 그리스도께로 동화된다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제 역시 모든 것

57) 「현대의 사제 양성」 13항.

58) Cf. Aa. Vv., *Enciclopedia del sacerdozio*(diretta dal G. Cacciatore), Libreria Editrice Fiorentina, Firenze, 1953, p.587.

59) 「현대의 사제 양성」 12항.

에 있어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행위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존재의 차원에서든 마찬가지다. 중개자의 직무 안에서 사제는 하느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선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봉헌하는데, 이는 외적인 활동에서만이 아니라 실존 자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제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선익을 추구하며,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착한 목자의 모범(요한 10,7~16 참조)을 따라 자신을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럼으로써 바오로 사도가 말하듯 ‘모든 이의 모든 것’(1코린 9,18~23 참조)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사제의 모습은 어떠한가? 물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자기 존재로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사제가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하다. 바오로 6세 교황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 직후의 시기에 이미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고 한탄하며 사제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런 사제들이 하느님의 교회를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망신시키며 얼마나 끔찍한 손해를 교회에 끼치고 있는지를 알아 준다면, 그들이 일찍이 받은 직무가 얼마나 중하고 얼마나 고상한 것인지를 생각만이라도 한다면, 또 그들의 현세와 후세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깨달아 준다면 일정코 그들은 자기 뜻을 결정함에 있어서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지혜로울 것이며, 하느님께 기도할 생각도 좀 더 간절하고 이런 영신적 내지 윤리적 변질의 원인을 방지하는 데에 보다 용감해 질 것이다.⁶⁰⁾

그러나 이 문헌이 발표된 후 사십 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교회의 우려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현대의 사제 양성」 문헌에서 이미 요한 바오로 2세는 사제 양성의 네 차원 — 인성 교육, 영성, 교육, 지적 교육, 사목 교육 — 중에

60) 바오로 6세, 「사제 독신 생활」(*Sacerdotalis Caelibatus*),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67, 86항.

서 인간적 차원이 모든 양성의 토대임을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인간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데 사제의 인격이 장애물이 되지 않고 하나의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사제는 자신의 인격을 갈고 닦아야”⁶¹⁾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에 가톨릭 교육성에서 발표한 「신학생 선발과 양성에서 심리학 활용 지침」 문헌은 요한 바오로 2세의 이 문장을 다시 한번 그대로 인용한다.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후속 교황 권고 「현대의 사제 양성」은 사제 양성의 여러 차원, 곧 인성 교육, 영성 교육, 지적 교육, 사목 교육을 다룬다. 교황 권고는 “사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영성 차원을 다루기 전에, 인간적 차원이 모든 양성의 토대임을 강조한다. 교황 권고는, 사제의 인격이 “다른 사람들이 인간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데 장애물이 되지 않고 하나의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사제에게 필요한 인간적 덕목과 인간관계를 맺는 역량들을 나열한다.⁶²⁾

여기에서, ‘사제의 인격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데 장애물이 되지 않고 하나의 다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부분은 사제의 중개자로서의 역할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곧, 하느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이끌어가는 중개자의 역할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영성을 찾아야 하는 사제의 신원을 분명히 드러내는 대목인 것이다. 앞서 사제의 신원과 사명을 하느님 백성을 위한 봉사와 연결하면서, 따라서 사제가 ‘친교의 건설가요 전문가’⁶³⁾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다. 자신의 존재와 사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중개를 통해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친교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친교를 이루는 것이 사제에게 부여되고 또 사제 자신이 응답한 직무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리스도의 사제직’ ‘목자적 사랑’ ‘그리스도께 동화됨’ 등

61) 「현대의 사제 양성」 43항.

62) 가톨릭교육성, 「신학생 선발과 양성에서 심리학 활용 지침」,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제40호(200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항.

63) 장흥훈, 앞의 글, 2~18쪽, 참조.

을 그 기준과 내용, 목적으로 하는 사제적 식별이 사제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드러나는 모습은, 사제 자신의 지향, 판단, 행위, 모습, 선택 등의 모든 것이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친교, 그리고 형제들 사이의 친교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를 성찰하는 모습이다. 사제의 삶과 영성에는 비슷한 상황에서 언제나 동일한 판단과 선택을 하게 하는 천편일률적이고 세세한 지침이 있지 않다. 오히려, 모든 상황과 환경, 직무 수행 안에서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기준이신 대사제 그리스도가 계실 뿐이며, 그리스도의 사제적 중개를 근본 원리로 삼아 자신의 삶의 자리의 모든 것을 해석하고 식별하고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이 사제의 삶이다.

비슷한 상황일지라도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다르게 드러날 수 있는 중개자의 역할이 무언지, 어떻게 하면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친교와 형제들 사이의 친교를 증진시킬 수 있을지, 자신의 존재를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목자적 사랑을 양떼에게 전하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를 공동체 안에 현존하시게 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자기 실존과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방법론적인 여정인 사제적 식별이다.

나가는 말

사제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상황과 만나게 되는 사람의 종류와 부류는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제의 행동을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같은 상황에서 늘 같은 행동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게 하는 일종의 지침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합당하지 않다. 따라서 사제에게 필요한 것은 실생활을 위한 정형화된 안내서가 아니라, 다양한 상황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을 내면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실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지(사명),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등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과 성찰이다. 이러한 내적인 자세에서 비롯되는 것이 사제적 식별이며, 이를 통해 사제는 자기 실존의 정체성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사제직, 목자적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면에 키워 가게 될 것이다.

이처럼 사제는 모든 사제의 삶의 원천이신 대사제 그리스도를 통한 사제적 식별, 곧 그리스도를 닮은 내적인 자세와 성찰(필리 2,5 참조) 안에서 살아갈 때, 참으로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그들을 괴롭히는 불의와 불안한 상황을 함께 아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에야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과 은총, 용서와 사랑을 참되고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이다.⁶⁴⁾ 따라서 하느님 백성을 위한 봉사라는 직무에서 우리나라는 자신의 신원을 참되게 살기 위해, 교구 사제는 자신의 삶 안에서 매일의 사제적 식별을 수행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4) Cf. A. FAVALE, *I presbiteri: identità, missione, spiritualità e formazione permanente*, Elledici, Leumann(To), 1999, p.282.

[참고 문헌]

1. 교회 문헌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거룩한 공의회」(*Sacrosanctum Concilium*, 1963),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
- _____,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 196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
- _____,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 「하느님의 말씀」(*Dei Verbum*, 196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
- _____,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196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
- _____, 주교들의 사목 임무에 관한 교령 「주님이신 그리스도」(*Christus Dominus*),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
- _____,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온 교회의 열망」(*Optatam Totius*, 196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
- _____, 교회의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 「만민에게」(*Ad Gentes Divinitus*, 196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
- _____,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사제품」(*Presbyterorum Ordinis*, 196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
- 바오로 6세, 「사제 독신 생활」(*Sacerdotalis Caelibatus*, 1967),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67.
- 요한 바오로 2세, 「현대의 사제 양성」(*Pastores Dabo Vobis*, 199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 베네딕토 16세, 「성직자 양성」(*Ministorum Institutio*), 2013.
-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직무 사제직」(*Ultimis temporibus*, 1971), 『사제 양성: 신학생 교육에 관한 교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603~637쪽.
- 가톨릭교육성,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Ratio fundamentalis institutionis sacerdotalis*, 197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0.
- _____,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Tria iam lustra*, 1985), 『사제 양성: 신학생 교육에 관한 교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31~123쪽.
- _____, 「신학생 선발과 양성에서 심리학 활용 지침」,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제40호(200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79~298쪽.
- 성직자성, 「본당 공동체의 목자이며 인도자인 사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3.

- _____, 「사제 성소의 선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8.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제 양성: 신학생 교육에 관한 교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 Congregazione per l'evangelizzazione dei popoli, "Guida pastorale. Le giovani chiese per i sacerdoti diocesani delle chiese dipendenti dalla Congregazione per l'evangelizzazione dei popoli"(1989.10.1.), in *Enchiridion Vaticanum* 11(1988~1989), nn.2495~2647.

2. 기타

- 마리오 카프리오리, 『사제직. 신학과 영성』, 기쁜소식, 2018.
- 민범식, 「내적 인간으로서의 교구 사제 생활의 역동성」, 『신학전망』 199(2017), 광주가톨릭대학교출판부, 107~164쪽.
- 장홍훈, 「친교의 전문가·친교의 건설가」, 『신학전망』 195(2016), 광주가톨릭대학교출판부, 2~18쪽.
- 토머스 그린, 『밀밭의 가라지』, 바오로딸, 1994.
- Aa. Vv, *Enciclopedia del sacerdozio*(diretta dal G. Cacciatore), Libreria Editrice Fiorentina, Firenze, 1953.
- Aquino, C., "Il discernimento spirituale in comune", in *Discernimento per "dire Dio" oggi* (Conferenza Episcopale Siciliana, M. Russotto ed.), Palermo, 2001, pp.227~232.
- Barruffo, A., "Discernimento", in *Nuovo Dizionario di Spiritualità*(a cura di S. De Fiore e T. Goffi), Paoline, Cinisello Balsamo, 1989, 5°ed., pp.419~430.
- _____, "Movimenti sacerdotali e spiritualità dei presbiteri", in *Rassegna di Teologia* 30(1989), 413~439.
- Bonfiglioli, G., "La spiritualità del prete diocesano", in *Alle sorgenti della spiritualità sacerdotale: commento del decreto «Presbyterorum Ordinis» sul ministero e la vita sacerdotale*(a cura di G. Giaquinta), Centro Editoriale Pro Sanctitate, Roma, 1966, pp.393~405.
- Buckley, M. J., "Discernimento degli spiriti", in *Nuovo Dizionario di Spiritualità* (diretto da M. Downey; edizione italiana a cura di L. Borriello), Libreria Editrice Vaticana, Città del Vaticano, 2003, pp.248~255.
- Cappelletti, A., "Discernimento degli spiriti", in *Dizionario Enciclopedico di Spiritualità I*(a cura di Ermanno Ancilli e del Pontificio Istituto di Spiritualità del Teresianum), Città Nuova Editrice, Roma, 1990, pp.806~810.
- Castellucci, E., "Il presbitero del 2000: uno sguardo alla teologia", in *Seminarium*

- 40(2000), 749~786.
- Conferenza Episcopale Siciliana, *Discernimento per “dire Dio” oggi*(M. Russotto ed.), Palermo, 2001.
- Costa, M., *Direzione spirituale e discernimento*, Edizioni ADP, Roma, 1993.
- Esquerda Bifet, J., *Spiritualità sacerdotale per una chiesa missionaria*, Urbaniana University Press, Vatican City, 1998.
- Favale, A., *I presbiteri: identità, missione, spiritualità e formazione permanente*, Elledici, Leumann(To), 1999.
- Fernández, M. M., “Discernimento”, in *Dizionario Teologico della Vita Consacrata*(a cura di T. Goffi e A. Palazzini), Editrice ÀNCORA MILANO, Milano, 1992, pp.615~638.
- Galot, J., *Gesù Liberatore. Cristologia II*, Libreria Ed. Fiorentina, Firenze, 1983.
- Ganss, G. E., “Discrezione”, in *Nuovo Dizionario di Spiritualità*(diretto da M. Downey; edizione italiana a cura di L. Borriello), Libreria Editrice Vaticana, Città del Vaticano, 2003, p.255.
- Laghi, P., “Sinodo '90: figura e formazione del prete del 2000”, in *Rassegna di Teologia* 32(1991), 5~16.
- Lavatori, R., Poliero, R., *Mistero e identità del presbitero: ripresentazione sacramentale di Gesù Cristo*, Urbaniana University Press, Città del Vaticano, 2002.
- Liedke, G., “spt”(giudicare) in *Dizionario Teologico dell'Antico Testamento II*(E. Jenni, C. Westermann), Marietti Editori, Torino, 1978, pp.902~911.
- Marmion, C., *Cristo ideale del sacerdote*, Vita e Pensiero, Milano, 1953.
- Oggioni, G., *“Vi ho chiamati amici”: spiritualità del presbitero diocesano*, Ancora, Milano, 1989.
- Pieri, F., *Paolo e Ignazio: testimoni e maestri del discernimento*, Roma, 2002.
- Ruiz Jurado, M., *Il discernimento spirituale: teologia, storia, pratica*, Edizioni San Paolo, Cinisello Balsamo, Milano: Società San Paolo, 1997.
- Rupnik, M. I., *Il discernimento*, Lipa, Roma, 2004.
- Schiavone, P., *Il discernimento evangelico oggi: cercare e trovare la volontà di Dio*, CIS, Roma; ESUR, Messina, 1988.
- Tiddia, P., “Sintesi delle risposte al Questionario”, in *La spiritualità del prete diocesano*, CEI, 1990.
- Vanhoye, A., *Sacerdoti antichi e nuovo sacerdote secondo il Nuovo Testamento*, Elledici, Torino, 1990.
- Zedda, S., *La lettera agli Ebrei*, Ed. Paoline, Roma, 1980.

국문초록

영적 식별은 그리스도교적 삶의 역동성에 포함되는 핵심 개념으로서,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로마 12,2)해 나간다. 따라서, 사제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직무사제 역시 매일의 삶 안에서 영적 식별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몸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직무로서 신자들을 가르쳐야 하는 교구 사제에게 있어서 영적 식별의 중요성은 더 크다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영적 식별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교구 사제가 자신의 삶과 사명 안에서 수행하는 식별을 ‘사제적 식별’이라 부를 수 있다. 이는 영적 식별을 전제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된 식별이 기보다는 사제의 신원과 영성, 사명에 더 직접 연결되는 식별로서, 사제이기 때문에, 사제의 삶의 형태 안에서 사제로서 행하는 식별이다. 그렇기에 사제적 식별의 대상은 외적인 직무 수행뿐만 아니라 사제 자신의 내적인 차원까지를 포함한다. 사제는 하느님 백성을 위한 봉사라는 기능적인 차원의 직무를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다 근원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통해 신자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내는 직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제적 식별의 대상과 내용, 목적, 기준 등의 핵심은 대사제 그리스도로 드러난다. 다시 말해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 특별히 양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바치는 착한 목자(요한 10,1~18 참조)이신 대사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방법이 바로 사제적 식별인 것이다. 이를 통해 사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필리 2,5)을 자신 안에 함양함으로써 점점 더 그리스도께 동화되어 가며,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목자적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중개하기 위해 영원하신 말씀께서 인성을 취하신 육화의 신비로부터 그리스도의 사제직이 비롯되었기에, 사제적 식별의 구체적인 적용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형제들 사이의 친교를 위한 중개 역할로 드러난다. 곧, 신자들을 하느님께로 이끌고 신자들 사이의 형제적 친교를 증진하는 것이 직무 사제의 존재 의미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수행해 나갈지에 대해 끊임없이 묻고 성찰하는 것이 사제적 식별의 구체적인 모습인 것이다.

이처럼 사제의 삶의 원천이신 대사제 그리스도를 통한 사제적 식별, 곧 그리스도를 닮은 내적인 자세와 성찰 안에서 살아갈 때, 사제는 참으로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불의와 불안한 상황을 함께 아파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럴 때 하느님 백성을 위한 봉사라는 직무에서 우리나라는 자신의 신원과 영성을 참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사제적 식별, 영적 식별, 성령, 교구 사제 영성, 사제직.